**연중제22주일(2018년 9월 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릴때는 늘 집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아지 한마리 키우고 싶은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게 바빠서 강아지를 키워도 관심과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인 줄을 잊어버리는 모양이예요. 자기가 만나는 인간들이랑 자기가 똑같이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처럼 앉아서 신문을 본다거나, 썬그라스를 끼고 앉아 있다거나,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개도 있습니다. 자꾸 올라와서 사람처럼 의자에 앉으려고 하고, 침대에서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합니다. 강아지는 사람들하고 오래 함께 살아서 그런지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랑 자기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거울을 보면 막 짖는 겁니다. 이상한 녀석이 ‘딱’하고 앞에 나타나니까, 그게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인줄 모르고, 막 짖는 거죠. ‘설마, 내가 저렇게 험악하게 못 생겼을까’하고 성질 막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가끔 착각하고 살지 않나요? 내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하느님인척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마치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세상일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는거 보셨습니까? 내 맘대로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모든 일을 다 내 맘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화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라고 고집부립니다. 내 뜻이랑 안 맞으면, 신앙도 필요없고, 하느님도 다 소용없습니다.

가끔 진지하게 내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반성’은 ‘reflection’이죠. 내 모습이 어떤지 비추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내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진짜 모습이 어떤가하고 진지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반성’이고 ‘성찰’입니다.

참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떤가요?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이 거울이 비추어지니까 깜짝 놀라시나요? 강아지가 거울에 나타난 자기 모습을 보고 ‘뭐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하고 막 짖어대는 것 처럼, 우리도 가끔 내 참된 모습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설마, 내가 저런 형편없는 모습일까?’ 내 제대로 된 모습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거 많고, 심술보에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내 참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 원래의 모습대로 솔직하게 사는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내 참된 모습을 나는 제대로 바라볼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참고 바라봐주고, 심지어 함께 살아주는 사람들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삽시다. 그게 인생 평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과 교만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정결예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 정결예식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결예식의 온갖 규정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마음의 문제는 소홀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스스로 거룩한 척 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율법 규정도 안지키고, 안식일법도 무시하고, 정결예식도 안지키는 무식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구원 받지도 못할 거라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될 수 있다는 당시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꾸짖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오직 관심은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좋은 대접받고, 거룩한 척 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규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기도문만 잘 외우면, 전례 규정만 잘 따르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구원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전례 잘 참석하는 것 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강아지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강아지 이야기로 마무리 하면, 강아지들도 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사랑받고 관심 받기 위해서 삽니다. 온갖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갖은 애교를 다 부립니다. 며칠만 사랑주지 않고, 관심 끊으면, 강아지들도 시무룩해지고, 기운 없어 합니다. 그리고 사는게 시시해지고, 삶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찮은 강아지들에게도 사랑과 정, 관심이 삶의 이유가 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